

## 외할머니 만세 !

김희영 · 마산 월성 초등학교 5학년 협동반

“오마, 오마. 우리 오마 불쌍해서 우짜꼬?”

외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엄마는 목놓아 울었다. 울다가 목이 쉰 채로 병원에 달려갔다. 나도 엄마 뒤를 따라 병원에 갔다. 외할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산소 호흡기도 달고 양쪽 팔에는 링거가 두 병이나 걸려 있었다.

그런 외할머니를 보자 엄마는 주저앉아 “꺼억 꺾” 소리를 삼키며 울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우는소리를 들으셨는지 눈을 천천히 뜨고 우리를 쳐다보셨다. 외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나도 울컥 눈물이 났다. 그 동안 외할머니께 냄새 난다고 신경질 부리고 때를 쓴 일들이 너무 미안했다.

저렇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는 방송국에 나가서 이모 찾는 방송을 꼭 하겠다며 기대에 부풀어 계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다. 폐가 안 좋아서 많이 앓으시다가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다고 한다. 청상이 된 엄마와 두 딸을 남겨 놓고 말이다. 외할머니는 연년생 두 딸을 키울 수가 없어 이모를 남의 집에 양녀로 보냈다고 한다. 이모를 데려간 양부모님이 소식도 없이 이사를 가 버려서 영영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엄마의 결혼으로 외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다른 동네에 살면서 나를 데려가서 키워 주셨다. 그러나 나는 외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 독하고 쾌쾌한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서였다.

외할머니는 울적할 때마다. 잃어 버린 이모 생각이 날 때마다 담배를 피워서 점점 골초가 되어 갔던 것이다. 외할머니 집 안방과 거실의 벽지는 누리끼리하게 번해 갔다. 이상한 냄새도 배었다. 나는 그 냄새가 너무나 싫었다. 내가 싫다고 짜증을 부려서 외할머니는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

비가 오는 날은 부엌바닥에 찌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외할머니가 미웠다.

엄마는 담배의 '담' 자도 싫어한다.

입원하신 보름 만에 외할머니는 퇴원을 하셨다. 외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우리 엄마는 집을 싹 바꾸었다. 벽지도 바르고, 재떨이도 모두 치웠다. 그리고 벽에는 이런 글을 써 붙였다.

“내 동생 찾아서 웃고 싶으면 엄마 제발 금연하세요.”

지금 외할머니는 담배를 끊으셨다. KBS 아침 프로 『그 사람이 보고 싶다』에 나가서 이모도 찾았다. 지금 외할머니는 행복하다고 하셨다. 이모가 낳은 아기를 맡아서 키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 아기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며 다짐을 잘 실천하시는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 좋다. 외할머니 만세 ! **ZZ**



## 담배 안 팔아요

송민정 · 서울 한강초등학교 6학년 1반

집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 그런데 내가 등교할 때면 그 오빠들도 그때서야 하품을 하며 등교를 하곤 한다.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일찍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했다.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에 등교를 하니 뭔가 확실히 이상했다.

그래서 동네에서 오래 산 친구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 학교는 공업 고등학교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과 같은

시간에 등교를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공업고

등학교 오빠들을

슈퍼나 우리 동

네 가게에서 자주 보

게 된다. 그럴 때마다 보게 되

는 오빠들은 참 많다.

미운 점은 동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운다는 점이다. 담배를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피우는 지 궁금했다. 동네에서 오가며 맡게 되는, 담배 연기가 나는 정말 싫다.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자신이 직접 피우는 담배보다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는 흡연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난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며칠을 보냈을 때였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오빠들이 담배를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걸 보게 되었다. 그 가게는 바로 앞에 대형 슈퍼가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가게 아저씨가 나와서 바람을 쐬고 계셨다.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혼자 말처럼 담배 피우는 오빠들을 보면서,

“어디서 담배가 나서 저렇게 피우는지 모르겠네”

하며 슬쩍 말을 흘렸다. 아저씨는 움찔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오랜

만에 큰 슈퍼를 두고 담배 파는 구멍

가게에서 물건을 사

러 들어갔다. 물건

을 한참 고르는데,

고등학생 오빠들

이 들어와서,

“여기 담배 한

갑 주세요.”하고 말

했다.

그때 아저씨는, “고등

학생한테는 담배 안 판다.”고 말했다.

순간 내 마음은 큰일을 한 것처럼 뿌듯해졌다.

지금도 우리 동네 가게 주위에는 담배를

피우는 오빠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감

시자가 되어 지키고 가게 어른들도 어린

학생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면 차츰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희

망을 갖고 싶다.

고등학생 오빠들이 담배를 그만 피워서 우리 동

네도 깨끗해지고, 오빠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나는 일부러 작은 그 가게로

과자를 사라 간다. 

